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 살아'

창단 50주년 광주시향의 알찬 프로그램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영어로는 골든 주빌리(Golden Jubilee)라고 부를 정도로 경사스런 해다.

1969년에 결성된 광주시민교향악단을 모태로 초대 상임지휘자 장신덕이 이끄는 시민교향악단이 시립으로 전환되며 1976년 7월에 정식 창단한 광주시향은 그동안 임평룡, 김용윤, 금노상, 구자범, 이현세, 김홍재, 홍석원 등이 상임지휘를 맡아왔고 현재 인천시향 상임지휘자 출신의 이병욱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두번째 해 임기를 시작했다.

광주 음악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시향은 이 뜻깊은 해를 맞아 지난 1월 1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2026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전반부는 강준일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이었다. 지휘자 이병욱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호남의 정서가 잘 반영된 국악적인 곡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사물놀이 협연곡을 한번도 광주시향이 연주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2부는 본인이 유학했던 오스트리아의 오페레타, 왈츠 등 빈필 신년음악회풍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유럽의 '만남'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이하게도 광주시향은 국내 시립교향악단 중 유일하게 전반기 프로그램만을 발표했는데 다음엔 1년 프로그램을 모두 발표해 청중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관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다음 프로그램인 403회 정기연주회(2월 3일)는 모두 브람스 곡만으로 꾸몄다. 브람스의 '피아노협주곡1번'에 비해 광주시향이 연주한지가 오래돼 선택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박재홍이 연주한다. 웅장한 4악장 구성의 대작 레퍼토리라 기대가 크다.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브람스 곡 중 가장 밝은 느낌의 '교향곡 2번'이 뒤를 따른다.

3월 20일 열리는 404회 정기연주회의 제목은 '보헤미아의 봄'이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열정의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연주하고 드보르작 '교향곡 8번'으로 산들바람처럼 불어오는 보헤미아의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조성진·임윤찬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클래식계이지만 이외에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은지를 박재홍과 박종해 두 피아니스트가 보여줄 것이라고 이 지휘자는 말한다.

405회 프로그램의 제목은 '레닌그라드'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의 제목으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군에게 900일 간 포위되어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국 함락되지 않았던 도시 레닌그라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진격, 전투와 공습이 다큐멘터리처럼 작품에 펼쳐지는 게 특징이다. 이 공연은 4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에서도 공연된다. 이 지휘자는 이 곡을 광주시향의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이 곡을 위해서는 객원 연주자들도 많이 써야하지만 이번에 도전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한다.

5월 연주는 광주시향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무대 'G50'다. 광주시향 50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5월 22일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한다. 5·18의 달이기도 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광주시향의 50년, 즉 100주년을 향해 가는 원년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로 이 곡을 특별히 선곡했다고 한다.

407회(6월 17일) 공연에는 객원지휘자로 강남심포니의 상임지휘자 데이비드 이를 초청했다. 지난해의 지휘자 정한결을에 이어 올해는 데이비드 이를 초청해 훌륭한 젊은 지휘자들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협연자는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4관왕 등 빼어난 연주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25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하다. 그래서 제목을 '청춘'으로 정했다.

지휘자 이병욱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5~6년 만에 광주시향 신입단원을 뽑는 오디션이다. 단원 확충은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광주시향의 특징을 순수함과 열정으로 표현한 그는 "2026년 정기연주회 시리즈를 통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병욱과 광주시향의 모습을 견지하겠다"며 "도약보다는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오케스트라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카시아'를 이용한 렌즈삽입술

김 재 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 박모 양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안과를 찾았다. 오랫동안 써온 두꺼운 안경을 벗고 스마일라식으로 예뻐진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각막이 너무 얇고 근시 도수가 높아 레이저 시력교정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실망하려던 찰나, 의료진은 박양에게 각막을 깎지 않는 렌즈삽입술(ICL)이라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했다.

겨울방학은 박양처럼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들이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안과로 몰리는 대목이다. 많은 이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마일라식, 라섹 등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수술법은 제각각이다.

특히 각막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심한 난시를 가진 경우 레이저로 각막을 많이 깎아 내면 안구건조증이나 원추각막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각막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렌즈삽입술(ICL)이 안전한 대안으로 꼽힌다.

렌즈삽입술은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안에 특수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각막 구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도근시나 난시 환자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안구 내부 공간에 렌즈를 삽입하는 만큼 수술 전 눈 속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마다 전방 깊이, 전방각, 수정체의 위치와 기울기 등이 모두 다르다. 만약 렌즈 크기가 미세하게 맞지 않거나 위치가 불안정할 경우 수술 후 안압 상승이나 백내장 유발 등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2차원적인 수치 측정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안구 내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장비가 바로 전안부 OCT '카시아 2(CASIA 2)'다. 일본 TOMEY사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고해상도 전안부 OCT 장비로 각막부터 수정체 후방까지 안구 전면부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다.

카시아 2의 장점은 초당 5만 A-scans의 속도로 단 0.3초 만에 검사를 마칠 수 있는 초고속·고해상도 스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렌즈가 삽입될 공간을 단면이 아닌 360도 전 방향에서 확인하여 최적의 렌즈 크기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시아 2는 렌즈삽입술 외에도 백내장 수술 전·후 계측, 녹내장 조기 진단, 각막 질환 진단 등 다양한 임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렌즈삽입술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안구 구조를 이해하고 정밀 검사 데이터를 해석해 수술에 반영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밀한 검사 장비와 축적된 수술 경험이 결합될 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력교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렌즈삽입술은 단순한 시력교정을 넘어 정밀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고도의 맞춤형 수술로 렌즈 사이즈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렌즈 크기가 과도하게 크면 안압 상승이나 녹내장 위험, 각막내피세포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렌즈 크기가 너무 작으면 수정체와의 간섭으로 백내장 발생 가능성 또는 렌즈가 눈 속에서 돌아다녀 난시축이 틀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술 가능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어떤 검사 장비로 얼마나 정밀하게 눈 속 구조를 분석한 뒤 수술 계획을 세우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기 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민 일상이 달라진다

고 미 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묻는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말이다.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한 뿌리로 이어져 온 역사 공동체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행정구역은 나뉘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다. 출근길은 경계를 넘고 생활권은 맞물리며 사실상 하나의 지역처럼 움직이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렇게 이미 하나로 움직이는 삶의 구조에 행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다. 생활은 하나인데 행정은 나뉘어 있어 주민께서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통합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더 나아가 지금은 각자가 경쟁하기 보다 더 큰 단위로 힘을 모아야 하는 시대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광주·전남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통합은 단순히 규모 확대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광주는 인력·기술 등 인프라가 탄탄하고 전남은 넉넉한 산업부지와 풍부한 에너지, 농수산과 항만 등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다. 서로가 이미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다. 행정통합은 서로의 강점을 하나로 엮어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마침 정부가 '5극 3특 체제' 아래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체급을 키울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하나의 투자 패키지를 만들고 인허가·보조금·세제지원 등을 통합 설계한다면 기업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다. 행정의 경계를 하나로 묶으면 정책의 힘도 하나로 모인다. 지금은 기업 지원, 인력 양성, 교통과 주거 정책이 따로 움직이지만,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예산으로 설계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이 빨라지고 생활 기반 시설이 촘촘해지며 일자리와 교육, 복지와 문화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통합은 행정조직을 합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회적 인프라를 다시 짜는 일이다. 그 토대 위에서 시·도민이 체감할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은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생활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나주에서 일하고 광주에 살거나 곡성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광주 병원을 이용한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어 서류를 각각 떼야 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이 되면 주민등록·차량·세금·복지 등 관련 민원을 어느 창구에서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광주·전남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직장과 소비, 교육과 의료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세정 제도는 여전히 두 개의 틀로 운영되면서 납세자에게 보이지 않는 불편을 주고 있다. 행정통합이 되면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전남에 나뉘어 있어도 세무조사를 한 번만 받게 된다. 또 절감된 행정경비와 새롭게 조성되는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생활밀착 사업과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관리하던 공유재산도 통합 관리해 유휴 공간을 개발 또는 주민 문화·창업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전·답이나 공공부지 일부를 주민 체험학습장, 생활편의 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우리 동네 공공시설'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특별행정기관 사무를 이관하여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

통합의 성패는 주민들의 체감도에 달려 있다. "일자리가 늘었다", "민원이 한 번에 처리됐다",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변화가 차곡차곡 쌓일 때 통합의 의미가 완성된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지역 정체성, 재정 균형, 행정조직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 공동체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준으로 통합의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겠다. 광주·전남의 내일을 주민들과 함께 열어갈 시간이다.

기고 환영합니다 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행정통합 본질 왜곡하는 청사 유치 공약 남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사 주소재지(주청사)가 결정되지 않아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과 정당이 주청사 유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주청사 유치 공약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통합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로 경계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어렵사리 통합 특별시의 명칭에는 합의했으나 전남 동부청사·무안(남악)청사·광주청사 등 3개 청사를 운영한다는 원칙만 정한 후 주청사는 7월 출범하는 특별시장에게 맡긴다고 발표했다. 어렵다보니 미봉책으로 남겨둔 것인데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나주청사 유치 주장이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주청사를 나주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청사 3곳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안으로 거론 할 가치조차 없다. 무안군의회도 주청사를 무안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 5명이 삭발을 감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당들의 주장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주청사 광주 설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통합 논의를 전북까지 확대해 '500만 호남대통합'을 내세우는 진보당 광주시당의 주장도 현재로선 논쟁만 양산하는 무의미한 공약이다.

통합 청사 소재지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로 남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출마예정자와 정당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담아 유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합 정신을 폄훼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행위를 기억했다가 후보 결정 과정에 반드시 심판하길 바란다.

임대료 인하 없이 충장상권 살리기 효과 없다

한때 호남 최고 상권이던 광주 충장로 상권의 붕괴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충장로 상권 가운데서도 핵심인 1~3가를 걷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문 닫는 점포가 늘어간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최근 1~3가 상가 199곳의 영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실률이 32.2%로 광주 동구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공실률(27.2%)보다 높았다. 불과 2개월 사이 상가 공실률이 더 늘었다는 것인데 브레이크 없는 상권 붕괴의 현실을 보여준다.

광주 동구가 지난 4년간 '충장상권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상권 살리기에 국비와 지방비 등 84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16억원을 들여 홍콩골목 확장 등을 할 계획이지만 혈세를 쏟아 붓는다고 살아날 상권이 아니다.

상권 부활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10평 기준 임대료를 보면 충장로 1~3가의 경우 150~200만원으로 상무지구(62만원)보다 3배 가량 높다. 충장로 임대인들이 지난 2년 사이 100여만원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공실을 막기에는 아직도 비싸다고 할 것이다.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점검해보니 100억원의 혈세에도 늘어나는 공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임대인 스스로 높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다. 전성기 때만을 생각해선 답이 없다. 공실은 전염병처럼 옆 점포로 번지는 습성이 있다. 지금 충장로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오프라인 상권의 다변화와 온라인으로 옮긴 구매 패턴을 감안하면 충장로 상권을 살리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혈세에 기대 상권 부활을 꿈꾸선 안된다. 임대인 스스로 합리적인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실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無等鼓

폐지 줍는 노인

며칠 전,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갑작스레 속도를 낮춰야 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만나서였다. 녹색 안전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는 폐지가 가득 실린 무거운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가는 중이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는 영하의 날씨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따뜻한 차 안에서 바라보며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가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다.

"참 좋은 사람이네"하며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어서 깜짝 놀랐다. 인도를 걷던 그는 리어카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서둘러 함께 리어카를 끌었던 것이다.

운전자들도 인상적이었다.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옆 차선의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을 최대한 갓길 쪽으로 붙여 할아버지의 리어카 사이로 반대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낀듯해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모습을 보며 언제나 폐박스를 차에 싣고 다니던 지인을 떠올렸다. 집에서 나오는 박스뿐 아니라 아는 가게에서 배출되는 박스까지 챙긴 그는 운전 중 폐지 줍는 노인들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리어카에 폐지와 폐박스를 실어주고 음료며 떡 같은 것도 전해주곤 했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광주의 착한가게 수가 2024년의 5471개소보다 1187개나 증가한 6658개소를 달성했다고 한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텅빈 가게들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광주시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최악 수준이다. IMF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도 나온다. 그럼에도 착한가게가 대폭 늘었다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것,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배려하는 것. 영하의 추위를 잊게 만드는 따뜻한 풍경들에 우리 모두 동참해 보면 어떨까.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